先學 궤적 따라 근대 불교·종교학 조명



주목! 학술서 – 불교와 함께한 종교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범재(凡哉) 이민용 선생<사진>은 불교학자이기도 하지만 종교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종교학의 자리에서 불교를 연구하며 불교학의 자리에서 종교를 학문적으로 조망해왔다. 현 학계에서 종교학과 불교학을 동시에 연구하는 인물이 없기에 그의 학문적 궤적은 불교·종교학계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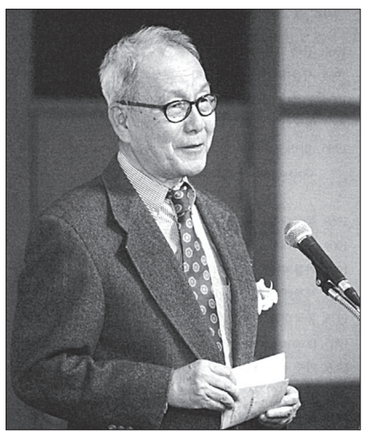
이민용 이사장의 학문적 궤적에 중심에는 근대 불교학과 오리엔탈리즘의 관계에 대한 조명과 비판이 있다. 그는 '서구 불교학의 창안과 오리엔탈리즘', '근대불교·학의 형성과 아카데미즘에서의 위상' 등을 통해 근대 이후 발명된 학문 체계로서의 '불교학'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을 조명·비판했다.

또한 이민용 이사장은 서구인의 불교 수용과 그에 따른 '백인불교'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 같은 현상을 종교학적 시선으로도 꾸준히 분석해왔다. 이는 '학문의 이종교배- 왜 불교신학인가', '미국 속의 불교와 불교의 미국화', '서구불교 신행의 양태와 서구적 불교의 탄생' 등의 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발간된 〈불교와 함께 한 종교연구〉는 불교학과 종교학의 가교를 놓은 학자인 이민용 이사장의 팔순을 기념하기 위해 후학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펴낸 것이다.

수록된 논고들의 주제는 이민용 이사장의 학문적 궤적과도 겹친다. 제1부 불교와 종교연구에는 한국 근대 불교의 탄생과 성격에 관한 논의들을 다룬다. 개항 이후 불교가 서구 근대성의 도전에 직면해 어떠한 고뇌의 몸짓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 종교로 새롭게 탄생한 불교는 어떤 성격과 특성을 지녔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논고 '조계종 전통의 창조와 혼종적 근대성(송현주)'을 통해서는 조선 불교 전통과 서구 근대 종교인 기독교, 그리고 경쟁자이자 모방 대상이기도 했던 일본 근대 불교가 한국 근대 불교의 탄생에 어떻게 개입하며 깊은 흔적을 남겼는가를 '전통의 발명(invention of tradition)'과 혼종성(hybridity) 개념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민용 이사장 팔순 기념해
후학들의 다양한 논고 담아
조계종단 형성, 불교잡지 등
한국불교 근대성 조명 '눈길'
종교학·불교 조망 논고들도

이와함께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조명제) △근대기 경산화파 화승 예운상규 불화 연구 △근대 전환기 민간 불교경험의 양태와 유산(민순의) △민주화 시대, 불교개혁운동과 그 한계(윤승용) △원효의 생사관(최유진) 등의 논고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불교잡지의 흥망성쇠와 그 이면, 민주화시대 불교개혁운동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점도 이번 문집의 강점이다.

제2부는 그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 종교학에서의 분류 체계, 종교 경전, 그리림과 신화, 섹슈얼리티 문제 등에 관한 논고를 통해 종교 일반과 불교를 조망해냈다. 제3부는 이민용 이사장의 학문 인생을 회고하는 수상을 실어, 그의 학문 세계에 접근하는 길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범재 팔순기념문집편찬위원회는 "이번 문집은 팔순을 맞은 범재 이민용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가르침에 힘입어 공부하고 연구해 온 학계 제자와 동학들이 그의 학문적 결을 따라 연구하고 공부해 온 성과를 모아서 엮었다"며 "한국 불교학과 종교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획 연구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안심정사 등 포교 성공 요인은?

불교문예연구소, 4월 22일 학술 세미나

도심사찰·불교단체 분석
현대 포교 성공 모델 확인

8.15 광복과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산업사회로 접어들며 도시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종교 역시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와 선교를 펼쳤다.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선교를 펼쳤던 개신교는 도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실제 개신교는 도시 곳곳에 수많은 대형교회들을 양산하며 그 세를 확장해 나갔다. 불교 역시 몇몇 선지식들을 중심으로 도심에서의 포교를 이어갔다.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은 안양에서 시작해 전국 및 세계에 지원을 둘 정도로 성장했으며, 태고종 안심정사는 '안심불교포럼' 등을 발족하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심사찰이다. 이들 사찰의 포교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2일 오후 1시 교내 호운관 강당에서 '불교의 현대적 포교와 성공 요인'을 주제로 춘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대 한국불교 포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불교단체와 도심사찰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정승안 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교수는 '만불화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김보경 박사(계명대 사회학과)는 '정토회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발표한다. 이명호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한마음선원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태고종 안심정사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대구관음회(대구불교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각각 선보인다.

논평자로는 양정연 한림대 생사문화학 교수, 이종우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용복 아시아종교연구원장,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도량탑서 탑돌이를 하고 있는 신도들.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은 한국불교 포교사에서 손꼽히는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다.

차차석 불교문예연구소장은 "현재 불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직도 현장에서의 포교는 전근대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한마음선원과 안심정사, 만불회 등은 도심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거나 스님을 중심으로 신행 공동체를 구성해 불법을 성공적으로 홍포해왔다. 이들의 사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현대 포교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지난 3월 6일 울진 산불을 피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운됐던 보물 불영사 영산회상도가 3월 24일 본래자리인 불영사로 돌아왔다. 사진=문화재청

화마 피해 이운한 불영사 문화재 복귀

문화재청 3월 24일 이운해

울진 산불을 피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운된 성보문화재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문화재청은 "동해안 산불에 따른 피해가 우려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긴급 이송했던 경북 울진 불영사 주요 문화재 3건 4점을 3월 24일 제자리로 옮겼다"고 밝혔다.

불영사로 귀환한 유물은 조선후기 불화 보물 영산회상도와 불교 의례용 가마 불연(佛輦), 경북유형문화재 신중탱화다.

이들 문화재는 지난 3월 6일 울진 산불이 거세지자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운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춘천博, 17기 박물관문화대학 운영

국립춘천박물관이 '2022년 제17기 박물관문화대학'을 운영한다.

'특별전으로 다시 읽는 박물관 스무 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물관문화대학은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한 박물관의 지나온 시간을 살핀다.

역사·문화·예술 분야 전문 강사가 참여해 인문·예술 분야 소양을 높이고 강원의 문화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일정은 5월26일 개강해 11월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1부 '역사를 담는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속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다. 이어 2부 '휴식이 되는 박물관'은 강원의 자연과 아름다움, 휴식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역할을 짚어보고, 3부 '브랜드가 되는 박물관'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박물관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대를 모색한다.

4월 12일부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박물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33)260-1522 신성민 기자

문화유산회복재단 '북계집' 국내 환수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국외 문화재 조사 중 20여 년 전 프랑스인이 취득해 소장하고 있던 조용석의 시문집인 〈북계집(北溪集)〉 목판 5, 6판을 발견하고 도난문화재임을 확인해 국내 환수 조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3월 21일 환수된 목판은 총 41판(표지 포함) 중 하나이며,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추가 조사와 소장자 협조를 통해 전체 판본의 환수를 추진 중이다.

〈북계집〉의 저자 조용석은 자는 천응(天應), 호가 북계(北溪)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경상북도 영천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목판을 사진으로 판독한 문화유산연구소 '길'의 기호철 소장은 "목판은 진본(眞本)"이라며 "목판과 출간된 문집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판 사진을 좌우 반전으로 뒤집어서 대조하면 자획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반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재외 동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외 문화재 조사와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외지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8개 국가, 11곳이다.

신성민 기자

